시나리오

우르크로 의료봉사를 하러 갔던 봉사단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들은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뉘어 헬기를 타고 우르크 공항으로 향하는데 우르크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먼저 헬기에 탔던 선발대 의료봉사단은 무사히 공항에 도착하지만 강모연은 비행기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사고가 난 지역으로 돌아가 의료활동을 하려 한다. 사고가 난 현장으로 돌아가보니 다행히 후발대와 사람들은 무사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윤명주 중위의 무전기가 울린다.

“발전소가 무너졌습니다!!”

발전소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소장에게 현장인원들을 묻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일단 로프를 들고 인부들을 구조하러 나선다. 밤까지 군과 의료팀의 구조활동이 계속 되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어남에 지쳐가는데 한국에서 유시진 대위와 서대영 상사가 속한 파견 팀이 도착했다. 유시진 대위의 절대 다치지 말라는 명령하에 본격적으로 발전소 내부 구조가 시작되었다.

완전히 붕괴된 건물뿐만 아니라 아직 붕괴되지 않은 건물조차 겉은 멀쩡해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 그 때 유대위가 한국에서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을 들고 왔다며 무엇인가를 꺼낸다.

“이건 이번에 새로 투입된 인명구조용 위치추적 드론이다. 여기에는 카메라와 gps기능 그리고 비콘이 탑재되어있다. 비콘이 실종자들의 정확한 위치파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드론 팀과 현장수색 팀을 나눠서 실종자를 찾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예 알겠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군과 의료팀의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드디어 3명의 실종인원의 신호가 잡혔다. 구조대에 합류한 이치훈은 실종자를 찾아내는데, 여진으로 인한 낙석으로 구조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생존자가 있음을 알린다.

파견 팀은 즉시 드론을 띄워 정확한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를 시작한다. 장비들로 무너진 건물잔해를 걷어내니 생존자가 있다. 서대영은 길을 뚫어내고 생존자와 함께 무사히 나온다. 비콘이 탑재된 드론을 통한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큰 도움이 되었다. 다행히 나머지 군과 의료팀도 다치지 않았다. 정신 없이 현장은 바쁘게 흘러가고 시진과 모연은 남은 2명을 구조하기 위해 끈을 들고 다시 나선다.